

강경민 9골...광주도시공사 개막 '2연승 질주'

대구시청 24-18 완파
원선필 4골1도움 MVP
신인 김수민 데뷔 득점



광주도시공사가 9골을 터트린 강경민을 앞세워 개막 2연승을 달렸다. 광주도시공사는 8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대구시청에 24-18(14-10 10-8)로 이겼다.

이로써 광주도시공사는 개막 첫 상대인 경남개발공사에 이어 대구시청을 격파하면서 2연승을 질주, 승점 4점을 확보하며 삼척시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이 9득점 6도움을 기록했고 골키퍼 손민지도 9세이브(방어율 47.37%)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초반부터 한 점차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 김희찬에게 선제골을 내준 광주도시공사는 원선필의 득점으로 대구시청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강경민과 김금순의 득점으로 5-4 리드를 잡은 광주도시공사는 이후에도 강경민의 활약 속에 팽팽하게 대구시청과 접수를 주고받았다.

한 점차 리드를 이어간 광주도시공사는 송혜수의 패스를 받은 신인 김수민이 데뷔 첫 득점을 기록한데 이어 서아루와 정현희, 김지현이 연속 득점하면서 4골차로 달아나 대구시청의 공격을 차단, 전반전을 14-10으로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 원선필(10)이 8일 경기도 광명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후반전에도 광주도시공사는 연속득점을 올리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후반전 초반 정현희와 원선필의 득점으로 2득점을 올린 광주도시공사는 상대 황은진에게 1골을 허용했으나 곧바로 정현희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대구시청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이어 김수민과 원선필의 득점이 이어졌고 강경민이 일대일 돌파에 성공하면서 6점차 리드를 잡은 채 20점 고지에 선착했다. 이후에도 광주도시공사의 맹공은 계속됐다. 광주도시공사는 골키퍼 박조은의 연속 선방과 송혜수, 강경민의 연속

득점으로 대구시청의 추격의지를 잠재웠다. 이어 서아루가 상대 타이밍을 뺏은 오버슛을 성공, 원선필이 강한 슈팅으로 득점을 연결 지으며 대구시청과의 격차를 9점으로 벌렸다. 이후 광주도시공사는 상대 이혜원, 허수림, 이원정에게 득점을 허용했으나 일찌감치 승기를 굳히면서 최종 24-18로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이날 4골 1도움으로 MVP에 선정된 원선필은 "2연승을 달리게돼서 좋다. 선수들도 모두 잘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팀이기 때문에 꼭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우승에 욕심도 있고 베스트7을 받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올시즌에는 김지현이 기대된다. 매년 성장해가고 있고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즌을 지내면서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일 열린 경남개발공사와의 개막 첫 경기에서도 28-25로 이겼다. 이날 전반전부터 앞치락뒤치락 치열한 접전을 펼친 광주도시공사는 상대 김지현에게 연속득점을 허용하면서 6-8로 끌

려갔으나 강경민, 서아루, 김지현, 원선필의 득점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상대 배민희와 정예영이 퇴장을 당하며 수적 우위를 잡은 광주도시공사는 한 점차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고 강경민의 득점으로 전반을 15-13으로 마쳤다. 후반전에도 시소게임을 펼친 양 팀은 원선필의 연속 득점으로 17-14점차 리드를 잡았다. 이후 상대실책을 틈타 맹공을 퍼부은 광주도시공사는 서아루의 패스를 받은 송혜수가 경남개발공사의 골문을 흔들며 23-19로 달아났고 최종 28-25로 이겼다. /조혜원 기자

황희찬, 리버풀 상대 시즌 첫 골

울버햄프턴-리버풀 무승부

'황소' 황희찬(27)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에서 이번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희찬은 8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2-2023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전)를 벤치에서 시작한 뒤 후반 18분 후방 네베스 대신 투입, 후반 21분 2-2로 균형을 맞추는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황희찬이 울버햄프턴에서 기록한 첫 골이다.

황희찬이 울버햄프턴 공식전에서 골을 넣은 건 지난해 2월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시즌 울버햄프턴에서 리그 5골을 넣었던 황희찬은 이번 시즌 들어서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가운데 좀처럼 골맛을 보지 못하고 앞서 두

움 2개만 기록 중이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1 역전승을 완성하는 극적인 결승 골을 넣으며 한국의 16강 진출에 앞장선 그는 이후 소속팀에서의 입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적 부진으로 월드컵 전 경질된 브루누 라즈 감독의 뒤를 이어 울버햄프턴의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이후 본격적으로 이글기 시작한 훌렌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을 연이어 선발로 기용했다.

황희찬은 이날은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팀이 1-2로 끌려다니던 상황에서 조커로 투입됐는데, 제 몫을 확실히 해내며 존 재감을 더욱 깊이 각인했다.

황희찬의 동점 골로 울버햄프턴은 패배 위기를 모면하고 리버풀과 2-2로 비겨 재경기로 다음 라운드 출전 여부를 가리게 됐다. /연합뉴스



8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2-2023 잉글랜드축구협회컵 3라운드에서 후반 21분 팀의 두번째 골을 터트린 울버햄프턴 황희찬이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페퍼, 현대건설에 0-3 셋아웃 패배

12일 4라운드 홈경기

페퍼저축은행이 올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다음 경기로 미뤘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7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4라운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12-25 20-25 15-25)으로 패배했다. 니아 리드가 13득점, 이한비가 12득점, 최가은이 7득점을 올리며 분투했으나 팀 패배에 빛이 바랬다. 현대건설과의 통산 9번 맞대결 모두 패배다.

1세트는 주포 니아리드가 2득점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초반 현대건설에 내리 4점을 빼앗긴 페퍼저축은행은 상대

고예림의 공격과 팀 범실로 5-13 8점차 리드를 내줬다. 이후 상대범실과 함께

박경현과 이한비, 니아리드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으나 이미 벌어진 점수차를 뒤집지는 못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에서 다시 힘을 냈다. 2세트 초반 이한비의 연속 공격과 최가은의 블로킹으로 7-4 리드를 잡은 페퍼저축은행은 상대 황연주와 양효진에게 점수를 내주며 8-8 동점이 됐다. 이후 한 점차 팽팽한 접전을 펼친 페퍼저축은행은 니아리드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20-21까지 따라붙었으나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하고 20-25로 졌다. 3세트 초반 5-11로 주도권을 뺏겼고 끝내 15-25로 세트를 내줬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12일 페퍼스타 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홈경기를 치른다. /조혜원 기자

피겨 차준환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우승

3월 20일 세계선수권 티켓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2·고려대)이 2023-2024시즌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차준환은 8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제77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S) 81.27점, 예술점수(PCS) 89.90점에 감점 1점을 합쳐 합계 170.17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101.04점)를 합쳐 최종 총점 271.21점을 받은 차준환은 김현겸(한광고·237.23점)을 큰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까지 석권하며 가볍게 새 시즌 태극마크를 달았다.

아울러 1, 2차 선발전 점수를 합산해 국내 남자 싱글 선수 1명에게 주어지는 세계선수권 티켓까지 차지했다.

2023 세계선수권대회는 3월 20일부터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다.

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환은 첫 번째 연기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 점프를 성공하며 괄목할 출발을 알렸다.

후반부에선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클린 처리했지만, 이어진 트리플 악셀-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싱글(1회전) 악셀 단독 점프로 소화했다. /연합뉴스



8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제77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차준환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푸마 브랜드데이 다양한 이벤트

페퍼저축은행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와 푸마 브랜드데이를 통해 배구 팬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이번 푸마 브랜드데이는 오는 1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개최된다.

푸마는 브랜드데이에 앞서 오는 9일부터 페퍼저축은행의 연구지인 광주 팬들을 위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푸마 신세계백화점 광주점과 푸마 광주충장로점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5일 경기 관람 티켓을 증정한다. 랜덤으로 제공된 티켓 중에는 평소에는 쉽게 방문할 수 없는 '패밀리존'과 'VIP라운지' 티켓이 포함돼 있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는 다양한 즐길거

리로 가득한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미니게임 및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푸마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페셜 응원석 '푸마존(PUMA ZONE)' 좌석을 구매한 관람객 전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작전 타임이나 세트 간 휴식 시간에 쿼드 타임, 럭키 드로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팬들에게 더욱 풍성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푸마코리아 관계자는 "푸마가 후원하는 AI 페퍼스타와 브랜드데이를 통해 배구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팬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더 많은 분들이 배구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